

온유함(민수기12:3)

할렐루야! 오늘 설교제목은 “온유함”입니다. “온유란?” 부드럽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한마디로 온유함은 그 “사람의 그릇”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좀 목석처럼 묵묵해도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특히 렘런트 사역자, 중직자, 목회자, 지도자의 성품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11:29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닦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12: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했던 모세는 이스라엘백성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을 돕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강한 주먹을 이기는 것은 날카로운 가위도 힘 있는 주먹도 아닙니다. 강한 주먹을 이기는 길은 부드러운 보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합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화내고, 열 받고, 씩씩 거리고, 날카롭게 대하면 지게 되고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을 돕니다.

요즘 “차도녀, 차도남”이 많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너무 차갑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부드러운 “부도녀, 부도남”으로 바꾸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뺑뺑하고, 크랙션 울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남편이 좀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고, 주먹이 날아오면 보자기로 부드럽게 싸버리면 됩니다.

1. 모세의 일생(120년)

(1) 40년 : 혈기가 지배(출2:11-15)

*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밖을 나가보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고서 화를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에 묻었습니다. 그것이 탄로가 나자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시 모세는 금수저 왕자였지만 그의 왕성한 혈기를 참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시에 흡수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욕하는 성질을 참지를 못하여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2) 40년 : 상처가 지배(출2:16-22, 출3:1)

*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이드로의 딸들의 물 갖는 것을 도와주어 거기서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모세는 이드로 장인 집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왕성한 혈기는 죽었고,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는 과정의 기나긴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호렙 산에서 양을 치는데 가시떨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안 해도 될 고생을 80년 동안하면서 인생을 낭비한 것을 돕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긴 시간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인 “온유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3) 40년 : 온유함이 지배(민12:3)

* 모세는 호렙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후 모세 인생의 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나의 호렙산을 찾아야합니다.

* 민12:1-13에 보면 모세가 흑인 구스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동생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당신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그러면서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미리암은 나병(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그것을 본 아론은 모세에게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회개하면서 나병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온유한 모세는 13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중보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입니다.

2. 모세의 인생작품

(1) 모세오경 기록 : 복음을 남기는 작품

① 신31:9-13, 모세는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여 레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절기 때 온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라.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② 신31: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오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창3:15절 여자의 후손, 창6:14절 방주, 출12:13절 피 제사, 민21:14-9절, 롯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것을 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얼마나 영적스릴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광경,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는 광경,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기적들, 불기둥, 구름기둥, 단벌 옷, 하나의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는 기적들,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신 기적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하고 있는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오경이라는 문서를 남겨 먼 훗날 우리의 후대,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작품을 남겨서 지금 우리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 응답의 발판 : 후대에게 발판이 되는 인생작품

① 모세(1대 지도자) -> 1대 지도자 모세는 2대 지도자 후대위하여 발판을 깔아줍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 여호수아(2대 지도자) -> (?)

③ ??? ->

*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인생작품을 남기기 위하여 지금부터 신중하게 꼼꼼하게 나만의 인생작품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강단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깊은 묵상 가운데 3오늘 기록, 또한 지역과 세계전도현장에서 일어난 나의 전도일지를 기록하고, 전도자료, 손 떼 묻은 성경책을 간직하여 후대에게 남겨야겠습니다.

결론> 우리의 일생(시편90:1-12)

- (1) 밤의 한순간(4), 잠깐 자는 것, 풀(5), 순식간(9), 신속히 날아감(10)
- (2)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12)
- (3) 모세는 멋지게 살다. 멋지게 갔다.